

1. 솔서혼 1

[수업을 위한 질문들]

1. 결혼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가?
2. 결혼은 왜 중요한가?
3. 결혼을 통해 시대의 특징을 알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4. 결혼에서 결혼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5. 결혼식과 결혼생활의 장소가 결혼의 특징(역사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6. 장소의 선정은 임의적(자의적)인가? 문화적인가?

1. 朱子家禮의 婚禮

- 고려의 혼속과 다른 주자가례의 혼속을 살펴본다.

- 議婚은 남자 16세에서 30세, 여자는 14세에서 20세에 한다. 자신과 혼례를 주관하는 사람이 期年 이상의 喪이 없어야 成婚할 수 있다. 반드시 먼저 중매로 하여금 왕래하여 말을 통하고 여자 집[女氏]에서 허락하기를 기다려 이후에 納采한다.

- 納采는 주인이 편지를 써서 새벽에 일어나 받들어 사당에 아뢴다. 이어 子弟를 使者로 삼아 여자 집에 간다. 여자 집의 주인이 나와 사자를 맞이한다. 드디어 편지를 받들고 사당에 아뢴다. 나와서 답장을 써서 사자에게 주고 드디어 예로 대접한다. 사자가 신랑 집[壻家]에 復命하면 주인은 다시 사당에 아뢴다.

- 納幣는 편지를 갖추어 사자를 여자 집에 보낸다. 여자 집은 편지를 받고 다시 답장을 하고 예로 손님을 대접한다. 使者는 復命한다. 모두 納采의 의례와 같다. (주자가례의 註 : 폐백으로 색비단을 사용하고 빈부에 따라 마땅하게 한다. 적어도 2필이고 많아도 10필을 넘지 않는다. 지금 사람은 비녀, 팔찌, 양, 술, 과일 등을 쓰는데 역시 가하다)

- 親迎은 하루 전에 여자 집에서 사람을 시켜 사위의 방에 (혼수를) 늘어놓는다. 다음 날 신랑 집은 방안에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 집은 밖에 장막을 설치한다.

초저녁에 신랑이 盛服하고 주인이 사당에 아뢴다. 드디어 그 아들에게 醮禮하고 맞이하여 오라고 명령한다. 신랑이 말을 타고 나가면 두 개의 촛불로 앞에서 이끈다. 여자 집에 이르면 장막에서 기다린다. 여자 집 주인이 사당에 아뢴다. 드디어 그 딸을

醮禮하고 명령한다.

주인이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면 들어가 奠雁을 한다. 유모가 여자를 받들어 나오면 수레에 오른다.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의 수레를 앞서 간다. 그 집에 도착하면 신부를 인도하여 들어간다. 신랑과 신부와 交拜를 한다. 자리에 나아가 음식을 먹고 마치면 신랑이 나간다. 다시 들어가 옷을 벗고 촛불을 켜다. 주인은 손님을 대접한다.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 신부가 시부모를 알현하면 시부모가 예로 대접한다. 신부는 여러 尊長을 알현한다. 만약 冢婦라면 시부모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시부모는 잔치를 베푼다. 3일째에 주인은 신부를 데리고 사당에 알현한다. 다음날 신랑은 신부의 부모를 가서 알현하고 다음으로 신부의 집안의 여러 친척을 뵈는다. 신부 집에서는 신랑을 예로 대접하기를 평상시의 의례처럼 한다.

2. 기본 자료

- 솔서혼의 기본 자료를 살펴본다.
- 솔서혼에 대한 기본 이해를 제시한다.
- 예조에서 服制式을 올리며 啓하여 말하기를, 前朝의 舊俗에 혼인의 예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가니[男歸女家] 아들과 손자를 낳으면 외가에서 자라므로 外親은 은혜가 무겁다고 생각하여 외조부모와 처부모의 服은 모두 휴가 30일을 주었다. (태종실록 권 29, 태종 15년 정월)
- 지금 국가의 王子의 혼인은 모두 親迎의 예를 행하나 사대부 집은 고루하여 간결함에 얽매어 婿留婦家한다. 그러므로 처를 취했다고 하지 않고 장가를 들었다고 한다.[不曰娶妻 而曰入丈家] 이는 陽이 도리어 陰을 따르는 것으로 남녀의 義를 크게 잃은 것이다. 마땅히 예법을 밝히 갖추어 인륜의 도를 바르게 해야 한다. (반계수록 권25, 昏禮 申明親迎之禮)

3. 혼속의 기원

- 솔서혼의 기원으로 고구려와 신라의 혼속을 살펴본다.
- 그 풍속에 혼인을 함에 말이 이미 정해지면 여자 집에서 小屋을 大屋 뒤에 짓고 婿屋이라 부른다. 사위가 저물어 여자 집의 문 밖에 도착하여 자기가 이름을 말하고 꿇어 절하며 여자에게 나아가 宿함을 얻기를 청한다. 이같이 두세 번 하면 여자의 부모가

듣고 하여금 小屋 가운데 나아가 宿하게 한다. 곁에 錢帛을 가지런히 놓는다. 아들을 낳아 이미 長大하면 아내를 데리고 歸家한다. (삼국지 권30, 魏書, 동이전, 고구려)

- 마침 나라에 事變이 있어 다른 사람으로 교대하지 못하고 6년이나 머물러 돌아오지 못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일러 말하기를 ‘처음에 삼년을 기약으로 하였고 지금 이미 넘었으니 가히 다른 집안에 시집갈 수 있다’고 하자, 薛氏가 말하기를... ‘信을 버리고 食言하는 것이 어찌 사람의 情이겠습니까 끝내 감히 아버지의 명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 아버지가 늙고 혼몽하여 그 딸이 장성한데 짝이 없으므로 강제로 시집보내고자 하여 몰래 마을 사람에게 혼인을 약속했다. 이미 날이 정해져 그 사람을 이끌어 오니 설씨가 굳게 거부하고 몰래 도망하려 하다가 이루지 못했다.(삼국사기 권 48, 열전 8, 설씨녀)

4. 혼례 및 결혼생활의 장소

- 술서혼에서 혼례의 장소 및 결혼생활의 장소를 살펴본다.

- 恭睿太后 임씨는 중서령 元厚의 딸이고 문하시중 李璋의 외손이다... 비녀할 나이가 되어 평장사 金仁揆의 아들 之孝가 처로 맞이했다.[聘之] 혼례 저녁에 之孝가 문에 이르자 妃가 갑자기 병이 나서 거의 죽게 되어 이에 사죄하고 돌려보냈다. 卜人이 占病을 보고 말하기를,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 처녀는 귀하기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이니 반드시 國母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고려사 권88, 열전 1, 후비 1, 仁宗, 恭睿太后 任氏)
- 上이 말하기를 “本國의 풍속은 中朝와 달라서 親迎의 예를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外家에서 젓 먹으며 길러지고 어떤 사람은 처부모의 집에서 장성하게 되니 恩義가 매우 두텁다...” (세종실록 권48, 세종 12년 6월)
- 도적이 橫川, 洪川 두 현에서 일어났다. 처음에 황천의 民 屎加大에게 아들 8인과 사위 1인이 있어 산과 계곡 사이에 살면서 漁獵으로 살아갔다. 흥천과 황천 사람이 싫어하여 야별초 指揮에게 말하여 잡기를 청했다. 집에 가니 마침 9인이 사냥을 나갔으므로 부모와 妻子를 죽였다. 이에 9인이 복수를 꾀하여 드디어 일어나 도적이 되어 두 현의 民 30여 인을 죽였다. (고려사절요 권18, 원종 5년 5월)
- 節婦 조씨는 遂寧縣 사람이다. ... 조씨는 13세에 隊尉 韓甫에게 시집가서[適] 딸 하나를 낳았다. 그 시아버지 壽寧宮錄事 光秀가 일본을 동정하매 신사년 여름에 軍中에서

죽었고 신묘년 여름에 浦도 또한 습부兵에게 죽었다. 조씨는 과부가 되자 언니를 따라 갔는데, 그 딸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자[適] 이에 딸을 따라 갔다. 딸이 1남 1녀를 낳고 일찍 죽자 손녀를 따라 지금까지 살았다. 조씨는 30세가 못 되어 아버지와 시아버지, 남편이 연달아 전쟁의 진영에서 죽어 홀로 50년을 살았다. (동문선 권100, 傳, 節婦曹氏傳)

○ 생각건대 장인께서 나를 家客이라 부르셨고 외람되이 혼인을 한 까닭으로 정성스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해 벼슬을 살았기에 돌아가 머무른다는 말을 못했으나 내가 만년에 이르면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어지러움을 당해 계책을 다하고 일찍이 喪을 관장하여 스스로 벗어났습니다. 侍奉한다는 기약은 비록 하지 못했으나 安危를 문안하는 것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東文選 권111, 李詹, 代李和寧薦亡舅疏)

○ 戶 白丁 韓祐 나이 53세 本은 益守, 父는 韓和尚인데 죽었다[故]. 祖는 韓泰인데 죽었다. 曾祖는 韓位인데 죽었다. 母는 申瑜인데 죽었고 本은 永興, 外祖는 金守長인데 죽었다.

戶妻는 申瑜인데, 本은 原州, 父는 申眞인데 죽었다. 祖는 敏光인데 죽었다. 母는 內隱伊인데 本은 平海, 外祖는 黃現인데 죽었다. 并産 1男은 左耳인데 나이 17세, 2남은 韓冲인데 나이 12세, 3남은 奉伊인데 나이 9세.

戶의 先妻는 豆瑟인데 죽었고 本은 漢州, 并産 1녀는 九月인데 나이 24세, 남편 都乙万은 나이 27세 本은 長州, 戶의 1남은 同良인데 나이 20세.

戶의 後妻는 万金인데 나이 37세 本은 登州. 끝[印]. [이 사람은 그의 口申으로 시행하였다] (고려말화녕부호적 斷片)